

전간기 일본, 냉전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시선 그 너머

아마추어 무선가, 과학 내셔널리즘, 제국 질서*

정지희

1. 머리말: ‘빼앗긴 기회’로서의 전간기(戰間期) ‘전파 공론장’ 신화

흔히 1925년 3월 도쿄방송국이 가(假)방송을 실시한 것을 일본 방송의 시초로 삼지만, 일방향 커뮤니케이션 형식의 ‘정식’ 방송에 한 발 앞서 라디오라는 당시 가장 선진적인 ‘뉴미디어’ 기술을 받아들여 쌍방향 소통을 시도했

정지희(鄭知喜) 서울대학교 일본연구소 조교수(HK).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 학사 졸업 후 캘리포니아 대학교 샌디에이고(UCSD) 사학과에서 통전기(通戰期) 일본의 라디오 방송과 대중의 국민화·시민화에 관한 연구로 석사와 박사 학위를 취득했다. 도쿄대학 정보학환(情報學環) 박사후연구원을 역임했다. 전문 분야는 일본근현대사와 미디어를 중심으로 한 대중 민주주의의 사회·문화이며, 공저로 *The Affect of Difference*(Univ. of Hawai'i Press, 2016), 『響き合う東アジア史』(東京大学出版会, 2019) 등이 있다. 최근 논문으로는 「미군 점령기 일본의 진상 폭로 미디어와 냉전 자유주의」(2020), “The Politics of Post-war Rehabilitation in US-Occupied Japan and Beyond”(출간 예정, 온라인 선공개) 등이 있다.

* 이 논문은 2019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임(NRF-2019S1A6A3A02102886). 동아시아일본연구자협의회 제4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한 초고에 유익한 제언을 해 주신 참석자 선생님들과, 투고 논문에 세심한 논평을 해 주신 정진성 선생님과 익명의 심사위원 선생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https://doi.org/10.29154/ILBI.2021.24.238>

던 아마추어 무선가(アマチュア無線家)들이 존재했다.¹ 이들의 숫자에 대한 정확한 통계는 존재하지 않지만, 1925년 봄을 기준으로 했을 때, 도시부를 중심으로 전국적으로 5만 명가량 존재했던 것으로 추산된다.² 이들 아마추어 무선가는 다만 라디오 기술 도입의 선구자로서만이 아니라, 전간기 일본의 국가·사회·개인의 관계를 설명하는 중요한 참조항으로 언급되어 왔다. 이 글은 후자로서의 아마추어 무선가에 초점을 맞춰 이들의 언설을 분석하고 행적을 추적하여, 아마추어 무선가를 둘러싼 지배적인 시선, 즉 ‘전과 공론장’ 신화로 인해 주변화된 역사적 정황을 조명할 것이다. 이를 통해 전간기 일본을 보는 냉전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의 시선을 비판적으로 고찰하는 기회를 마련하려 한다.

전간기 일본의 국가·사회·개인 관계와 관련하여 언급될 때에 아마추어 무선가는 주로 개인의 실현과 자유에 가치를 두고 체제에 순응하지 않으며 국가에 의한 통합의 구심력으로부터 벗어나려 했던 존재로서 표상되었다.³ 예를 들어 일본을 대표하는 미디어 연구자인 요시미 슌야(吉見俊哉)는 이들의 쌍방향 송수신 행위가 국가로부터 독립된 ‘자유권’(自由圏)으로서 ‘공중전파대’(空中電波帯)를 형성한 것으로 본다. 또한 이들 중 일부가 ‘공중(空中)의 자유 사용’을 주장했던 것을 두고 일종의 ‘전과 공론장 논의’였던 것으로 독

1 ‘아마추어 무선가’는 라디오 도입 초기에 일본에서 음차로 표기한 라디오(ラヂオ 혹은 雷智雄) 대신에 번역어인 무선전화 혹은 방송무선전화라는 표현의 사용빈도가 높았던 탓에 정착된 용어다. 라디오 관련 자료·연구에서는 줄여서 ‘아마추어’라고 쓰기도 한다. 일본아마추어무선연맹은 아마추어 무선을 “상호 통신하는 행위”로 정의하여 정규 방송과 구분한다. 日本アマチュア無線連盟 編, 『アマチュア無線のあゆみ: 日本アマチュア無線連盟50年史』, CQ出版, 1976, 27쪽; 문부성이 1941년 4월부터 국민학교 교과서에 일본어화한 외국어의 가타카나 표기법을 통일했고, 일본방송협회도 통일된 표기법에 따르면서 1941년 무렵에 라디오 표기가 라ヂオ에서 ラジオ로 바뀌었다. 이 글에서는 원자료의 표기에 따라 표시하였다.

2 苫米地貢, 「創業前後の回顧: 主としてアマチュアの立場から」, 岩間政雄, 『ラジオ産業廿年史』, 無線合同新聞社事業部, 1944, 265쪽; 日本放送協会 編, 『日本放送史』上巻, 日本放送出版協会, 1965, 22쪽.

3 吉見俊哉, 『「声」の資本主義: 電話・ラジオ・蓄音機の社会史』, 河出文庫, 2012(講談社選書メチエ 1995년판의 재간), 232~246쪽; Mizukoshi Shin, “From Active Enthusiasts to Passive Listeners: Radio, the Stat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ireless Imagination,” Umesao Tadao et al., eds., *Japanese Civilization in the Modern World vol. xiv: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Osaka: National Museum of Ethnology, 2000, pp. 65~75; 데보라 R. 포스칸저, 古賀林幸 訳, 「無線マニアからオーディエンスへ: 日本のラジオ黎明期におけるアマチュア文化の衰退と放送文化の台頭」, 水越伸 責任編集, 『20世紀のメディア(1): エレクトリック・メディアの近代』, 徳島: ジャストシステム, 1996, 93~115쪽.

해한다.⁴ 이러한 전간기 이해는 일방향 발신 행위로서 정식 방송이 개시된 이후에 아마추어 무선가들은 ‘수동적인 청취자’로,⁵ 특히 1930년대 이후에 라디오는 ‘집권적 통제 기구’로 변모해 간 것이라는 설명으로 이어진다.⁶ 요컨대 일본의 아마추어 무선가는 전간기 일본에 등장했으나 전시 체제가 압살해 버린 자유주의 공론장의 맹아, 즉 일본 민주주의 발전의 ‘빼앗긴 기회’를 상징하는 존재였다.

관련 법규의 부재로 큰 제약 없이 이루어지던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송신에 법적 규제가 가해진 것은 정식 방송을 앞둔 1923년의 일이다. 방송용 사설무선전화규칙(放送用私設無線電話規則 1923년 12월 20일)으로 규제 방침이 정리되고, 특히 방송용사설무선전화감독사무처리세칙(放送用私設無線電話監督事務處理細則 1924년 2월 26일)으로 출판법·신문지법의 내용 규제에 준하여 방송 내용에 관한 규제가 실시된 것이다. 아울러 1934년 일본방송협회(이하 방송협회) 기구 개편으로 일원적인 방송 체제가 한층 강화된 것 또한 사실이다.⁷ 이 글 역시 이러한 역사적 정황을 사소한 것으로 취급하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발신 자체만 놓고 본다면, 이미 1915년 가결된 무선전신법으로 애초부터 원칙적으로는 주무 대신의 허가를 얻어야만 방송이 가능했고,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경우 실험 전용(專用) 시설로 허가를 받을 수 있었다. 그리고 실험 전용인 경우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점은 방송용사설무선전화규칙 시행 이후에도 달라지지 않았다.⁸ 규제가 가해진 이후인 1926년 일본아마추어무선연맹(日本アマチュア無線連盟)이 결성된 것을 보더라도, 규제의 시작을 아마추어 활동의 압살로만 보기는 어렵다. 1927년부터 단파 방송은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 되지만, 실험용으로는 허용된 바 있고, 중파를 이용한

4 吉見俊哉, 『「声」の資本主義: 電話・ラジオ・蓄音機の社会史』, 232~238쪽; 유사한 서술 방식은 최근 연구에서도 발견된다. 溝尻真也, 『声を伝える/技術を楽しむ: 電話・ラジオのメディア史』, 飯田豊 編著, 『メディア技術史: デジタル社会の系譜と行方』改訂版, 北樹出版, 2017, 76~78쪽.

5 Mizukoshi Shin, “From Active Enthusiasts to Passive Listeners: Radio, the Stat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ireless Imagination,” 71~72쪽.

6 吉見俊哉, 『「声」の資本主義: 電話・ラジオ・蓄音機の社会史』, 239~240쪽.

7 日本放送協会 編, 『日本放送史』上巻, 308~323쪽.

8 安藤博, 『放送ラヂオ』, 早稲田大学出版部, 1925, 156~161쪽.

아마추어 라디오 방송은 1941년 태평양 전쟁 발발 이전까지 금지되지 않았다.⁹

한편 전과 공론장 개념이 속의 민주주의가 기능할 수 있게 하는 자유로운 발화와 토론을 상정한다면, 당시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송수신 행위를 이와 같은 활동으로 볼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송수신은 발화 내용보다는 주로 소통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 자체에 대한 경이에 힘입은 것이었기 때문이다.¹⁰ 전후 일본에서는 개인 사이의 자유로운 송수신이 가능해졌음에도, 햄 라디오 송수신 양상이 딱히 전과 공론장의 이상에 부응하지 않았던 점도 시사하는 바가 있다. 시라토 겐이치로(白戸健一郎)의 연구에 따르면, 전후 햄 라디오 무선가들의 주요 관심사는 여전히 쌍방향 커뮤니케이션을 가능하게 하는 기술의 통달이었고, 내용 면에서도 정치·사회적인 문제를 두고 토의하기보다는 주로 신변잡기적인 내용을 소소히 공유하는 데 머물렀기 때문이다.¹¹

무엇보다 위에서 언급한 지배적인 접근법은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든, 전간기 일본의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국가를 대척점으로 하는 정치·사회적 진공상태에서 라디오라는 새로운 미디어를 받아들인 듯한 착시를 불러일으키기 십상이다. 이러한 착시는 전후 냉전 자유주의의 영향 아래 고전적인 부르주아 시민사회 공론장 모델의 필터를 한 차례 거친 것으로, 국가와 개인 사이에 ‘자유’를 둘러싼 이항대립을 전제한 채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행

9 日本アマチュア無線連盟 編, 『アマチュア無線のあゆみ: 日本アマチュア無線連盟50年史』, 46~55쪽, 60~62쪽, 103~104쪽, 191~193쪽.

10 Mizukoshi Shin, "From Active Enthusiasts to Passive Listeners: Radio, the Stat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ireless Imagination," p. 71. 미즈코시는 미국과 달리 시민적 사회 참여에 대한 열의를 결여한 일본적인 현상으로 문제시하나, 방송 내용에 집중하는 주지주의적 접근과 다른 시각에서 당시 아마추어 무선 붐을 설명하는 연구들을 참조할 만하다. 직접 제작하는 행위가 주는 쾌락에서 요인을 찾는 연구로는 溝尻真也, 「ラジオ自作のメディア史: 戦前・戦後期日本におけるメディアと技術をめぐる経験の変容」,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76号, 2010, 139~156쪽; 미약 전파를 활용한 전후의 자유 라디오 사례를 다루긴 하지만, 직접 제작과 기술-신체 사이의 경계가 소멸하는 무선적 상상력에 대한 통찰을 주는 글로는 코가와 테즈오[고가와 데쓰오], 최재혁 옮김, 『아키바손의 사고』, 미디어버스, 2018, 특히 II부 손의 사고, 그중에서도 144~153쪽 참조. 이 책을 권해 주신 김계원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11 白戸健一郎, 「『CQ ham radio』: 無線コミュニケーション雑誌のメディア機能」, 佐藤卓己 編, 『青年と雑誌の黄金時代: 若者はなぜそれを読んでいたのか』, 岩波書店, 2015, 246쪽, 252~254쪽.

위나 가치관을 판단하도록 만든다. 이 글은 이 점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시선으로 인해 비(非)가시화되거나 주변화된 역사적 정황들을 조명하려 한다.

특히 이 글에서 주목하는 것은 바로 아마추어 무선가들 사이에 만연해 있던 경쟁적 과학 내셔널리즘과, 이들이 라디오 상용화를 목표로 군·관 및 정규 방송국과 긴밀하게 공조한 정황이다. 이미 잘 알려져 있다시피 일본 방송 도입기에 정부보다 한 발 앞서 당시 라디오의 ‘민중화’ 혹은 ‘대중화’라고 지칭되었던 상용화 담론을 확산시킨 것은 통속 과학자이자 아마추어 무선 실험가들이었다. 이 글은 이들의 당시 저작과, 『무선과 실험』(無線と実験)·『라디오의 일본』(ラジオの日本)과 같이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즐겨 읽었던 통속 과학 잡지의 언설을 면밀히 검토할 것이다.¹² 또한 방송이 점차 일방향 발신으로 인식되고, 1925년 도쿄·오사카·나고야 3개 방송국이 개설되고 1926년 방송협회로 통합되는 과정을 거친 이후의 시기까지 시야에 넣어, 대표적인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행적을 추적할 것이다.

위의 정황을 복원하는 일은 전간기 일본의 국가·개인·사회의 관계를 보는 시선에 문제를 제기하는 일이기도 하다. 위에서 언급했듯, 아마추어 무선가들은 전간기 일본의 개인과 사회를 국가의 대립항으로 전제하는 시각을 강화해 왔다. 이러한 시각은 1960년대 중반 무렵부터 뚜렷해진 전후 민주주의 동요에 대한 위기감에서 ‘다이쇼 데모크라시’(大正デモクラシー)를 ‘비국가적인 가치의 자립’으로 규정하여 전후 민주주의의 원형을 일본사의 내재적 발전에서 찾으려는 의식적인 노력의 산물이었다.¹³ 하지만 국가에

12 이 글은 대표적인 아마추어 실험가와 아마추어 무선 잡지를 분석한 다카하시 유조와는 다른 접근을 취한다. 다카하시는 이들을 군·관·대기업이라는 ‘공식’ 영역에 대비되는 ‘비공식’ 영역(unoofficialなセクター)에 위치지운 결과, 이들을 국가와 무관한 사적인 존재로 표상하는 지배적인 시각을 강화한다. 이러한 다카하시의 시각은 후술하는 이다 유타카(飯田豊)와 마찬가지로 현 시점에서 ‘시민’에 의한 산업 혁신의 선례로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를 표상하는 방향으로 귀결된다. 高橋雄造, 『ラジオの歴史: 工作の(文化)と電子工業のあゆみ』, 法政大学出版局, 2011.

13 千葉功, 「研究史整理と問題提起: 一九六〇~七〇年代を中心として(特集 大正デモクラシー再考)」, 『歴史評論』 766号, 2014, 12~13쪽; 인용은 三谷太一郎, 『大正デモクラシー論』, 東京大学出版会, 1995, 1~2쪽.

‘전체주의’의 이미지를 투사하여 자유로운 개인의 대극에 위치시키는 냉전 자유주의의 영향 아래에서 오랫동안 받아들여진 것 또한 사실이다. 물론 전간기 일본의 민주화가 국민화와 중첩되었으며, 사회의 개조가 국가의 개조와 긴밀하게 연동되었던 점, 그리고 국내의 민주화와 1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제국주의의 전개가 상호구성적인 관계에 있었던 점 등이 고려되면서, 위의 시각이 전간기 일본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 한다는 비판이 이루어졌다.¹⁴ 그럼에도 민주적이고 리버럴한 전간기와 억압적이고 파시스트적인 전시 사이의 단절이라는 오랜 전제가 방송사 부문에서 여전히 크게 도전받지 않은 셈이다. 이는 탈냉전적인 포스트전후로 지칭되는 현재에도 냉전적 전후의 주된 시선의 자장(磁場)이 다하지 않았음을 방증한다.

이와 같은 시각의 지속은 아마추어 무선가를 둘러싼 또 하나의 신화를 낳는다는 점에서 문제적이다. 데보라 포스칸저(Deborah Poskanzer)는 아마추어 무선가를 뉴미디어 시대의 해커에 비유하여 “지치지 않는 도전과 실험, 규제에 대한 반감, 기술적 발견과 자기 발견과의 로맨틱한 관계 등은 해커의 서브컬처에 보이는 전형적인 가치관”이라고 주장한다.¹⁵ 신자유주의가 맹위를 떨치는 현재의 맥락에서 ‘시민’의 바람직한 자본 참여의 선행로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호명되기도 한다. 이다 유타카(飯田豊)는 ‘연구 기관이나 산업 자본에 대한 시민 참가’의 이상적인 모습으로서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를 언급한다.¹⁶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를 둘러싼 역사적 정황이 현시점

14 千葉功, 「研究史整理と問題提起: 一九六〇~七〇年代を中心として(特集 大正デモクラシー再考)」, 13~14쪽; 有馬学, 「『大正デモクラシー論』の現在: 民主化・社会化・国民化」, 『日本歴史』 700号, 2006, 134~142쪽; 나리타 류이치, 서민교 율김, 『근대 도시공간의 문화경험: 도시공간으로 보는 일본근대사』, 뿌리와 이파리, 2011, 215~255쪽; 전간기 천황제 민주주의(imperial democracy)에 관해서는 Andrew Gordon, *Labor and Imperial Democracy in Prewar Japan*,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91; 국내 민주화와 제국 개조의 상호 구성적 관계에 관해서는 요네타니 마사후미, 조은미 율김, 『아시아/일본: 사이(間)에서 근대의 폭력을 생각한다』, 그린비, 2010, 113~147쪽; Jung-Sun N. Han, *An Imperial Path to Modernity: Yoshino Sakuzō and a New Liberal Order in East Asia, 1905-1937*,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Asia Center, 2012; 한정선, 「다이쇼 일본과 ‘현대’의 가능성」, 『역사와 현실』 115호, 2020, 23~55쪽.

15 데보라 R. 포스칸저, 「無線マニアからオーディエンスへ: 日本のラジオ黎明期におけるアマチュア文化の衰退と放送文化の台頭」, 96쪽.

16 飯田豊, 「技術思想としてのアマチュアリズム: 日本の電気通信技術をめぐる市民参加の歴史社会学」, 『電気通信普及財団研究調査報告書』 28号, 2013, 18쪽.

에서 다시 검토되어야만 하는 것은 이들 정황이 그저 박제된 과거가 아니라 이처럼 국가·사회·개인의 관계를 보는 현재의 시선과 긴밀히 연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2장에서는 선행 연구에서 주변화되었던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초기 언설과 활동에 주목하여, 이들 중 상당수가 이미 국민국가(더 넓게는 제국) 통합과 국제 경쟁 논리·과학 내셔널리즘을 내면화한 ‘국민’의 입장에서 라디오 상용화를 주장했음을 분명히 할 것이다. 3장에서는 이들의 담론과 활동 공간이 제국 본국과 식민지를 넘나들며 군·관과 밀접하게 연동한 정황을 드러낼 것이다. 4장에서는 정규 방송 개시 후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활동을 가능한 범위 안에서 추적한다. 상당수는 방송이 일방향 발신 행위로 제한된 후에도 방송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하거나 참여했으며, 쌍방향 소통이 아니더라도 방송이 가져올 혜택의 ‘민중화’에 관심을 표명했다. 맺음말에서는 이 연구에서 조명한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언설과 활동에 비추어 전간기 일본을 보는 현재적 시선에 문제제기하는 것으로 글을 마무리할 것이다.

2.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 경쟁적 과학 내셔널리즘, 제국 질서

당시 라디오 방송 기술은 무엇보다도 근대 문명이 이룩한 최첨단 과학 기술의 도달점을 상징하는 기호였다. 그러나 상당한 자산·문화 자본·정보력, 그리고 호기심과 모험심을 갖춘 소수의 개인이 공유했던 근대성 성취 욕구나 취미 활동으로 라디오라는 미디어가 전간기 일본의 아마추어 무선가들에게 불러일으킨 비상한 관심과 기대를 온전히 설명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¹⁷

17 라디오 기술 도입 초기의 아마추어 무선가와 열성적인 청취자를 근대적 취미와 ‘기분’에 심취한 라디오 애호가(ファン)로 다룬 연구로는 竹山昭子, 『ラジオの時代: ラジオは茶の間の主役だった』, 世界思想社, 2002, 33~40쪽; 山本透 外, 『草創期の『ラヂオ気分』: 東京朝日新聞の記事から』, 『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14号, 1984, 71~150쪽.

일본사학자 히로미 미즈노(Hiromi Mizuno)는 『어린이의 과학』(子供の科学)·『과학 화보』(科学画報) 등의 아동 잡지를 분석하여 일본의 통속 과학 문화와 과학 내셔널리즘(scientific nationalism) 사이의 상호 구성적인 관계를 논증한 바 있는데, 이 글에도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준다. 미즈노는 과학 내셔널리즘을 “과학과 기술이 민족/국가(nation)의 보전·생존·진보를 위해 가장 시급하고 중요한 자산이라는 믿음”에 기초한 내셔널리즘으로 정의한다.¹⁸ 후술하듯,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라디오 상용화 주장의 주요한 논리는 미즈노가 정의한 과학 내셔널리즘의 일종으로 독해될 수 있다. 다만, 미즈노는 전간기 일본이 산업화 부문에서 구미 따라잡기 근대화를 성취하면서, 근대성과 과학을 ‘서양’의 것으로 상정하던 메이지 시기의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이들을 보편적인 것으로 상상하게 되었던 차이를 강조한다.¹⁹ 이 글은 이러한 차이를 염두에 두는 한편, 대표적인 아마추어 무선 실험가·통속 과학자의 당시 언설의 경우, 첨단 과학 기술의 상용화 정도를 비교 대상으로 한 ‘경쟁적 내셔널리즘’에 주목하여 고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술사학자 나카오카 데쓰로(中岡哲郎)가 정의했듯, 경쟁적 내셔널리즘이란 “항시 목표로 하는 선진국을 찾아내어, 스스로의 뒤떨어짐을 주시하여 따라잡고 앞지르기 위해 스스로를 채찍질하는” 내셔널리즘이다. 나카오카는 경쟁적 내셔널리즘이야말로 “국제 산업 경쟁하의 내셔널리즘의 상태(常態)이자 특징”이라고 지적한다. 그리고 경쟁적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담론에 “자국민을 질책해야 한다는 사명감”에서 “그 재료로서 외국에 대해서는 뛰어난 점을, 자국에 대해서는 결함을 찾아내려 하는 경향”이 있었다고 분석한다. 나카오카의 분석에 따르면, 거의 ‘피학적’으로 보이는 경쟁적 내셔널리즘 담론은 자국이 ‘후진적’이라는 ‘사실’을 반영하기보다는 엘리트들이 위로부터의 시선에서 과학 진흥과 교육을 촉진하기 위한 수사로 기능했다

18 Hiromi Mizuno, *Science for the Empire: Scientific Nationalism in Modern Japan*,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Press, 2009. 인용문은 p. 11.

19 Hiromi Mizuno, *Science for the Empire: Scientific Nationalism in Modern Japan*, pp. 12~15, pp. 25~27.

고 할 수 있다.²⁰

이른바 ‘후발 산업 국가’이자, ‘비(非)서양’ 국가로서 구미 제국의 근대화 수준을 따라잡고자 했던 일본의 근대화 과정에서 과학 기술을 대상으로 한 경쟁적 내셔널리즘이 만연했음은 선행 연구에서 밝혀진 대로다.²¹ 물론 제국으로 발돋움한 일본의 국제적 위상과 정체성의 변화로, 전간기 일본에서 더 이상 ‘서양’을 유일무이한 문명의 기준으로 간주하지 않게 되었던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주지하다시피 국민국가 단위의 근대적 위계는 20세기 문명관과 문화 개념에도 잔존했다.²² ‘서양’의 전유물이 아닌 보편적인 것으로 간주된 탓에 과학 기술이 오히려 개별 국민국가를 발전 정도에 따라 줄 세울 수 있는 공신력 있는 척도로 상상된 역설적인 상황을 염두에 뒀어야 한다.²³

전간기 라디오 방송 대중화를 둘러싼 역사적 정황은 당시 첨단 과학 기술 도입 주장이 여전히 경쟁적 내셔널리즘을 환기시키는 방식으로 이루어졌음을 보여 준다. 일본의 아마추어 무선가 붐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 무선 실험가들은 1920년 미국에서 정식 방송이 개시된 이후 영국이나 독일과 같은 구미 제국들이 앞다투어 라디오를 상용화하는 것을 지켜보면 서 일본 또한 하루 빨리 이를 달성해야 한다는 초조감을 내보였다. 이들은 거의 예외 없이 라디오의 상용화 정도를 국민국가 사이의 우열을 가리는 척도 가운데 하나로 인식하고, 경쟁적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무선 기술 보급 담론으로 일반 대중을 계몽하려 했다. 당시의 무선 실험가들은 자율적이고

20 中岡哲郎, 「ナショナリズムと科学の制度化」, 河野健二 編, 『フランス・ブルジョア社会の成立: 第二帝政期の研究』, 岩波書店, 1977, 246~247쪽.

21 Tessa Morris-Suzuki, *The Technological Transformation of Japan: From the Seventeenth to the Twenty-First Centu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94, pp. 71~157; David G. Wittner, *Technology and the Culture of Progress in Meiji Japan*, London and New York: Routledge, 2008; 有山輝雄, 『情報覇權と帝國日本』 I-III, 吉川弘文館, 2013~2016.

22 Prasenjit Duara, "The Discourse of Civilization and Pan-Asianism," *Journal of World History* 12(1), 2001, pp. 99~130; Sho Konishi, "Translingual World Order: Language without Culture in Post-Russo-Japanese War Japan," *Journal of Asian Studies* 72(1), 2013, pp. 91~114.

23 히로미 미즈노는 1942년 ‘근대의 초극’ 좌담회에서 과학이 논의하기 난감한 주제가 되어 버린 점을 지적하는데, 이러한 역설적 상황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Hiromi Mizuno, *Science for the Empire: Scientific Nationalism in Modern Japan*, pp. 1~2.

진취적인 개인이자 ‘뉴미디어’ 기술의 선각자이긴 했지만, 대부분 독학으로 무선 지식을 습득한 ‘통속 과학자’에 불과했다. 이러한 민간의 아마추어 실험가들이 무선 기술의 보급을 “자국민에게 질책”할 지도적 위치를 자임할 수 있었던 것도 경쟁적 과학 내셔널리즘이 일종의 도덕적 우월감을 부여한 덕분인 것으로 보인다.

대표적인 예로 안도 히로시(安藤博, 1902~1975)를 들 수 있다. 안도는 시가현(滋賀県) 출신의 발명가로 라디오 기술을 일본에 발 빠르게 소개하여 ‘일본 공학 기술의 개척자’·‘일본의 에디슨’·‘동양의 마르코니’ 등으로 불렸던 인물이다. 와세다대학에서 공학을 전공했으나, 중학생 시절부터 이미 전파 방면을 독학으로 연구하여 천재 소년 발명가로 이름을 날렸고 학부 졸업에 4년 앞선 1922년 이미 『무선 전화』라는 기술 안내서를 출판한 바 있다. 1925년 펴낸 『무선 전화의 연구』(無線電話之研究)라는 책에서 안도는 일본을 ‘방송 실시가 늦은 나라’로 규정하고, “무선 방송의 실용 방면이 서양에 비해 뒤쳐져 있다”는 점을 거듭 일본의 문제로 거론했다.²⁴ 또한 미국·영국·프랑스·독일의 라디오 상용화 사례를 자세히 들고, “세계의 문명국이라 불리는 나라 가운데 오늘날 방송이 없는 나라는 없다”는 점을 들어 일본에서도 하루 빨리 방송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²⁵

이토 겐지(伊藤賢治) 또한 유사한 입장이었다. 이토는 원래 의료 기계 실험 및 제작 부문에서 활동하다가 일찍이 무선 방송 기술에 흥미를 가지게 된 인물이다. 혼고 아카몬마에(本郷赤門前) 아카몬빌딩 4층에 무선실험사(無線実験社)를 차리고 『무선의 지식』(無線の知識, 1924)과 같은 책을 펴냈으며, 같은 해 5월에 “일반인을 교육하여 무선 지식을 일으키려”는 목적으로 잡지 『무선과 실험』을 창간하기도 했다.²⁶ 이토는 1924년 출간한 아마추어용 라디

24 安藤博, 『無線電話之研究』, 早稲田大学出版[部], 1925, 1쪽, 4쪽.

25 安藤博, 『放送ラヂオ』, 早稲田大学出版部, 1925, 145~155쪽, 인용은 155쪽.

26 이토와 함께 『무선과 실험』 창간을 주도한 미타무선연구소(三田無線研究所)의 이바라키 사토루(茨木悟)의 증언에서 인용. 茨木悟 外, 「創刊50年記念大座談会: 『無線と実験』50年の歩み』, 『無線と実験』 60卷 5号, 1973, 123쪽.

오 조립 안내서에서 문명국을 건설하고 일본 무선가의 우월함을 세계에 보이기 위해 무선 기술을 하루 빨리 습득하도록 일본의 청소년 독자들을 독려했다.

현대는 과학 만능의 세상이다. 오늘날의 청소년은 [중략] 과학적 연구를 거듭해 크게 장래 세계의 문명국을 건설해야 하는 역할이 있으므로 과학 발명계의 각광을 받는 무선의 연구는 제국의 새로운 두뇌에 기대하는 바가 다대하다. [중략] 영미의 무선 애호가는 반드시 스스로 장치를 조립한다. 용돈이 생기면 무선 부품품을 하나씩 사서 마지막에는 훌륭하고 완전한 장치를 완성한다. 이것이 미국이 지금의 무선계에서 왕성한 이유다. 바라건대, 우리나라 청소년도 그들에 뒤지는 일 없이, 많이 연구하여 우월함을 세계에 자랑하는 날이 오기를 바랄 따름이다.²⁷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이미 국민국가 단위의 국제간 경쟁 논리를 내면화한 ‘국민’의 입장에서 라디오 상용화를 주장한 예는 이외에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제국의 일원으로서의 애국심과 우국지정에 호소하기도 했다. 이와 같은 언설이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가장 즐겨 읽었던 잡지 가운데 하나인 『무선과 실험』 발간사에 등장한 것은 의미심장하다.

사회 인류의 문명 척도는 전기 응용의 상황에 의해 측정되고 또한 전기의 정수(精髓)는 라디오에 의해 대표되는 것은 요즘 학계의 표어가 아닌가?

그러나 우리나라 이 분야의 상황은 어떠한가. 무선 방송의 법령이 발표된 지 이미 반년인 지금에 이르러서도 한 개의 방송국도 설치된 것을 듣지 못하고, 실로 깨치지 못하는 것도 심하지 않은가?

보라, [간토]대지진 직후 요코하마항 내에 있던 고레아마루에서 발신한 전파는 다시 하라노마치(原ノ町) 무선국을 거쳐 참절(慘絶)한 상황을 전 세계에 알

27 伊藤賢治, 『素人用無線電話聴取装置の製作法』, ラヂオ電気商会出版部, 1924, 1~4쪽.

려 제도(帝都)의 구제와 부흥의 제일선 무대에서 활동하지 않았던가?

이번에 우리들 동인(同人)이 상의하여 무선 과학 보급을 목적으로 본지를 창간했다.

애국의 지성, 우국의 혈심이 어린 것이 본지다. 바라건대 일편단심을 알아주시라.²⁸

위의 발간사는 『무선과 실험』 편집 주간 도마베치 미쓰구(苫米地貢, 1889~1962)가 쓴 것이다. 도마베치는 일본에 무선 기술을 일찍부터 알려 무선계의 ‘선각자’로 불린 통속 과학자·아마추어 무선가다. 1921년 중립무선연구소(衆立無線研究所)를 설립하고, 라디오를 제작하여 공개실험에 나섰다.²⁹ 『취미의 무선전화』(趣味の無線電話, 1925)·『대무선학집수』(大無線学集粹, 1926) 등의 무선 기술 관련 베스트셀러를 저술했고, 『어린이의 과학』·『라디오와 실험』(ラヂオと実験)과 같은 여타 통속 과학 잡지에도 빈번히 기고했다. 도마베치는 위의 발간사 이외의 언설에서도 상당히 뚜렷한 경쟁적 과학 내셔널리즘을 내비쳤다. 구미 상황을 시찰하고 돌아와 중립연구소 이사 직함으로 1926년 1월 21일 나고야공창(名古屋工廠)에서 가진 강연이 그 좋은 예다.

우리나라에도 7천만 국민 중 지금 실로 이 방면에 한 두 사람이라도 눈을 떠 연구하여 세계의 선구자가 되지 않으면 70년 전 흑선(黒船) 하나 때문에 위정자와 국민(上下) 모두 아연실색했던 때 이상의 큰 사건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장담할 수 없고, 그 경우에 이르러 아무리 많은 아마토 정신(大和魂)이 있다 해도 도저히 도움이 되지 못할 것이므로, [중략] 주의를 요하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³⁰

28 苫米地貢, 「發刊の辭」, 『無線と実験』 1卷 1号, 1924, 2쪽. 원사료의 機浜는 요코하마로, コレア丸는 これや丸로 바로잡아 번역했다.

29 勝田重太郎, 「電波界列伝: 苫米地貢」, 『電波時報』 18卷 4号, 1963, 26~27쪽.

30 苫米地貢, 「欧米に於ける無電界の現状」, 『造兵彙報』 4卷 6号, 1926, 641쪽. 공창은 육해군에 직접 소속되어 군수품을 제조하던 공장을 가리킨다.

도마베치는 선행 연구에서 다른 아마추어 무선가와 달리 유독 ‘국수론’·‘초국가주의’ 성향이 강했던 인물로 간주된 바 있다.³¹ 이런 접근을 따른다면 위에서 언급한 『무선과 실험』의 발간사 또한 도마베치 개인의 돌출적인 성향 문제로 치부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당시에 동인들이 도마베치의 이와 같은 생각에 크게 반대했음은 의문이다. 이토 겐지와 이바라키 사토루(茨木悟)는 『무선과 실험』을 구상하던 단계에서 초대 편집 주간으로 도마베치를 영입했다.³² 도마베치가 여타 동인들과 양립할 수 없는 사상 지향을 가진 인물이었다면 일어나기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또한 도마베치의 생각이 동인들의 구상에서 동떨어진 것이었다면 잡지의 취지를 언명하는 발간사에 공공연하게 표명하기는 쉽지 않았을 것이다.

이토 겐지의 『무선과 실험』 발간 당시 회고는 이런 추정을 뒷받침한다. 이토는 본인이 애독하던 미국 잡지 *Radio Experiment*를 본떠 ‘라디오 실험’을 잡지명으로 쓸 생각이었다. 그러나 당시에 “국수론자가 많아” 이들이 “라디오는 외래어이므로 안 된다, 일본어로 하라.”라고 요구하는 바람에 결국 ‘라디오’ 대신 ‘무선’을 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다.³³ 이토의 증언은 동인들의 반대가 있을 경우 개인의 의향만 고집할 수 없는 분위기였던 점을 시사한다. 또한 과학 기술이 서양의 것이라는 꼬리표를 떼 전간기 일본에서도, 외래의 것으로 상상된 보편과 내셔널한 것을 대립항으로 보는 사고방식이 사라진 것은 아님을 짐작케 한다.

31 高橋雄造, 『ラジオの歴史: 工作の(文化)と電子工業のあゆみ』, 51쪽; 佐藤卓己, 『テレビ的教養: 一億総博知化への系譜』, 岩波書店, 2019(NTT出版 2008년판의 재간), 33쪽. 사토는 정확한 정의를 제시하지 않은 채 ‘초국가주의’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전시 일본과 나치 독일에 등장했던 극단적인 내셔널리즘(ultra-nationalism)을 통칭하는 전후 일본의 일반적인 용법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정확한 규정 없이 사용되는 ‘초국가주의’ 개념은 내셔널리즘이 극단적인 내셔널리즘으로 변하는 정확한 계기를 규명하기 보다는 개인과 국가 사이의 대립을 전제하는 냉전 자유주의의 시각을 재생산하는 방향으로 작용하기 쉽다.

32 茨木悟 外, 『創刊50年記念大座談会: 『無線と実験』50年の歩み』, 131~132쪽.

33 伊藤賢治, 「本誌の創刊当時を回顧して」, 『無線と実験』50卷 8号, 1963, 98쪽. 다카하시 유조는 이 말을 한 국수주의자가 도마베치일 것으로 추정하나, 근거는 제시하고 있지 않다. 高橋雄造, 『ラジオの歴史: 工作の(文化)と電子工業のあゆみ』, 50쪽. 그러나 『무선과 실험』에 기고한 글만 보더라도 도마베치는 ‘무선’, ‘ラヂオ’, ‘雷智雄’를 번갈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이토가 국수론자가 ‘많아서’라고 표현한 점을 염두에 뒀다 한다.

달리 말해, 정도의 차이는 있을지언정, 경쟁적 내셔널리즘과 과학 내셔널리즘을 내면화한 점에서 도마베치가 여타의 대표적인 아마추어 무선가와 반드시 동떨어진 존재였을지는 의문이다. 오히려 ‘국수론자’·‘초국가주의자’라는 선부른 규정이 도마베치와 같은 인물이 예외였던 것처럼 간주하게 할 우려가 있다. 이력으로 보면 이른바 ‘국수론’이나 ‘초국가주의’ 성향을 의심받기 십상인 인물은 하마치 쓰네야스(濱地常康, 1898~1932)일 것이다. 하마치는 민간인 최초로 체신성으로부터 송신 허가를 교부받았고 1922년부터 일본 라디오 잡지의 시초라고 할 수 있는 『라디오』(ラヂオ)를 발간한 인물이다.³⁴ 다카하시 유조가 밝힌 것처럼, 아버지 하마치 하치로(濱地八郎)가 국가주의·아시아주의 단체인 겐요샤(玄洋社)에 깊이 관여했고, 누이 둘이 겐요샤의 지도자 도야마 미쓰루(頭山満, 1855~1944)의 두 아들과 혼인할 정도로 두 가문 사이의 유대 또한 각별했다. 실제로 도야마는 하마치 쓰네야스가 1918년 세운 도쿄발명연구소의 고문을 지내기도 했다.³⁵

그러나 발표된 저작으로 보면 하마치는 당시의 많은 아마추어 무선가의 상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수준의 경쟁적 내셔널리즘을 내면화한 인물로 보인다. 하마치는 무선 기술 안내서 서문에서 다른 나라에서는 무선 기술이 급격히 발달하고 보급되는 데 반해 “우리나라를 보아하니 명목은 일등 국가라도 항상 다른 외국에 선수를 뺏겨, 미국 등에서는 소년이라도 무선 전화를 듣고 즐기는 지금, 우리나라의 학교에서 무선 전화 실험 등을 행하는 곳이 몇 군데나 있겠는가?”라고 개탄했다.³⁶ 또 다른 기술서의 결론에서는 “일본에서도 [중략] 훌륭한 진공구 책을 써, 나를 필두로, 라디오[가 상용화된] 국가 사람들의 코를 납작하게 하여 소위 미국보다 열등한 [나라] 국민의 힘의 일단(一端)을 알게 한다는 것도, 반드시 무익한 일은 아니라고 믿는 바

34 「わが国で最初に私設無線電話を許可された青年発明家濱地常康」, 『ラジオ科学』 8卷 3号, 1950, 12쪽.

35 高橋雄造, 『ラジオの歴史: 工作の(文化)と電子工業のあゆみ』, 47쪽; 高橋雄造, 「濱地常康の『ラヂオ』から『無線と実験』へ: 日本最初のラジオ雑誌」, 『科学技術史』 11号, 2010, 5쪽.

36 濱地常康, 『真空管式無線電話の実験』, 東京発明研究所, 1923, 1쪽.

이다.”라는 의견을 개진했다.³⁷

선행 연구에서 딱히 ‘국수론’·‘초국가주의’ 성향을 지적받은 바 없는 안도 히로시가 오히려 국가의 안위를 위해 무선 방송에 대한 정부의 규제를 따라야 한다는 견해를 피력한 것도 기억해 둘 만하다. 안도는 1925년 저작에서 “무선은 단지 방송에만 그 존립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군용이나 여타 일국의 안위와 관계되는 중요한 역할도 때로 담당하는 것이므로, 경솔히 행동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라는 입장을 밝혔다.³⁸ 안도의 입장은 아마추어 무선가라면 누구나 규제에 반대했으리라는 가정을 재고하게 만든다. 또한 국가의 ‘안위’에 대한 고려가 이러한 규제를 받아들이게 하는 한 요인이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한편 당시의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제국’·‘제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것만 보더라도, 이들이 제국 질서 안에서 무선의 도입과 상용화를 고려했음은 분명하다. 실제로 안도는 1925년 시점에서 따라잡아야 할 선진적인 외국 사례를 논하면서 1차 세계대전 당시 프랑스에서 식민지까지 방송권역에 들어온 점을 언급하고 있다. 전간기에 무선 기술 수준과 보급 정도에서 가장 선진적인 나라로 여겨졌던 미국의 사례 가운데에서도 하와이까지 본토의 방송이 미치고 있었던 점도 거론했다.³⁹ 주지하다시피 당시 하와이는 미국에 합병되었으나 정식 주(州)로 편입되지 않았던 ‘내부 식민지’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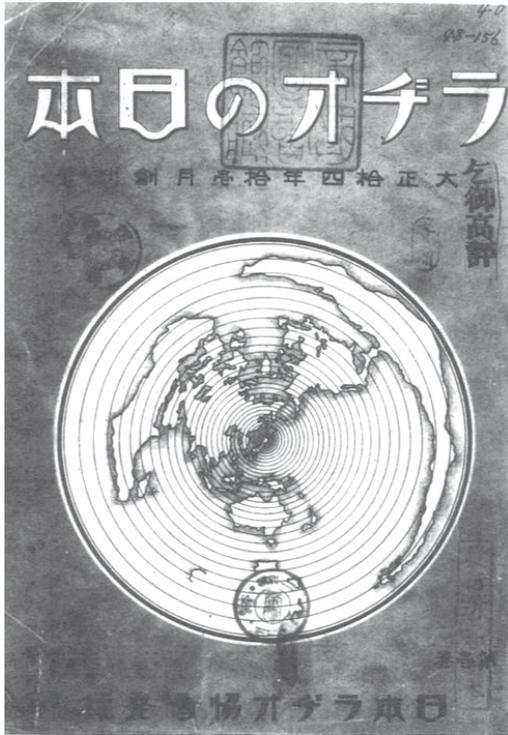
『무선과 실험』과 더불어 대표적인 무선 잡지인 『라디오의 일본』 창간호 표지(〈그림 1〉)는 라디오 기술이 무선 지식 및 실험을 선도했던 인물들에게 주로 어떤 상상력을 자극했는지를 시각화하여 보여 준다.⁴⁰ 창간호 표지는 일본을 중심에 두고 동심원으로 세계로 퍼져 나가는 전파의 이미지로 장식되었으며, 이 점은 국가의 대척점에 선 자유로운 개인이라는 규정이 다 담

37 濱地常康, 『無線用真空球の原理と応用』, 誠文堂書店, 1924, 179~180쪽.

38 安藤博, 『放送ラヂオ』, 160~161쪽.

39 安藤博, 『放送ラヂオ』, 14쪽, 146~147쪽.

40 『라디오의 일본』은 1925년 11월에 일본라디오협회가 창간한 잡지다. 동 협회는 “무선전화와 그 외 일반 전파의 응용에 관한 지식의 보급 교환 및 연구”를 목적으로 1925년 설립된 사단법인이다. 日本文化中央聯盟 編纂·発行, 馬場万夫 監修, 『戦時下日本文化団体事典』 3卷, 大空社, 1990, 158쪽.



〈그림 1〉「라디오의 일본」 창간호 표지

지 못하는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감수성을 시사한다. 당시의 대다수 아마추어 무선가들은 국민국가 단위의 경쟁적인 세계 질서와 제국 간의 암묵적인 경쟁과 견제라는 전간기의 역사적 조건 안에서 라디오라는 신기술과 개인, 국가/제국, 세계의 관계를 생각했던 것이다.

위의 정황들을 고려하면, 시공을 가로지르는 무선 기술의 특성 자체가 국가나 제국과는 무관한 코스모폴리탄한 상상력을 자극했으리라는 가정은 재고되어야 한다.⁴¹ 이 장에서 보았듯 경쟁적 내셔널리즘으로 각인된 국가와 제국이 상당수의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정체성에서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오히려 다음 질문을 던져 봐야 할 것이다. 당시의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존재 양태가 어떠했기에 다수의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정체성이

41 무선 기술과 코스모폴리탄한 상상력을 연결시킨 예로는 佐藤卓己, 『現代メディア史』, 岩波書店, 1998, 141쪽.

선행 연구에서 흔히 가정한 것과는 달리 국가·제국과 밀접하게 결부되었던 것일까? 다음 장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다룬다.

3. 아마추어 무선가와 군·관: 활동과 담론 공간의 중첩

위에서 언급한 미즈노 히로미의 연구는 전간기 통속 과학자들도 일본의 과학 문명을 발전시켜 일본을 일등 국가로 만들겠다는 과학 내셔널리즘을 내면화하고 있었음을 지적하면서도, 이들을 국가 기구의 포섭 대상, 즉, 군·관과 분리된 존재로 상정한다. 통속 과학 문화의 유행을 다이쇼(大正) 시기에 유행했던 자유교육 운동의 한 흐름으로 보기 때문이다. 획일적이고 암기 위주로 진행되는 국가의 과학 교육에 반대하여 경이(wonder)를 통해 개인의 과학에 대한 자발적인 학습 욕구를 일깨우는 방식으로 과학 정신을 배양하려 했다는 설명이다. 미즈노는 이러한 전간기 자유주의 문화 운동이 전시에 국가 주도의 신민 교육 기획에 포섭된 것으로 이해한다.⁴²

그러나 전간기에 라디오에 대한 경이를 불러일으켰던 통속 과학자이자 아마추어 무선 실험가들과 국가 및 제국의 관계는 이와 같은 이분법을 넘어 검토할 여지가 있다. 우선 아마추어 무선가와 군·관의 관계는 흔히 알려진 것보다 훨씬 긴밀했다. 군과 체신성은 민간에 앞서 방송기를 확보하고 실험 방송을 실시했는데, 도마베치에 따르면, 이 ‘시바우라(芝浦) 방송기’는 “당시 아마추어들에게 실로 유일의 전파 전당이였으며, 그 전파를 잡는 것을 목표로, 아마추어 수신기 제작 열기가 양양”되었다고 한다.⁴³ 라디오 기술 연구 초기에 군과 체신성은 기술과 설비에서 민간보다 앞서 나갔으며, 그만큼 아마추어 무선가들 사이에서 권위를 누렸다.⁴⁴

42 Hiromi Mizuno, *Science for the Empire: Scientific Nationalism in Modern Japan*, p. 144. pp. 149~150, pp. 169~170.

43 苫米地貢, 「創業前後の回顧: 主としてアマチュアの立場から」, 264쪽.

44 『무선과학 이야기』(無線電話の話, 曠台社, 1924)·『라디오 제작법』(ラヂオの作り方, 東京放送局,

잘 알려진 아마추어 무선 실험가가 군과 체신성의 권위를 승인하고 이에 기대어 자신의 연구의 가치를 주장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분위기이기도 했다. 안도 히로시가 자신의 책 서론에 쓴 글은 이 점을 잘 보여 준다. 안도는 “일본인이라고 해서 전부 그들[외국인]에게 뒤처지지 않음은 우리나라 체신성·육해군 축특(屬特)의 연구에 비추어 보아도 [중략] 분명하다. 본서의 기술(記述)은 체신성에서 공인된 저자의 무선 연구소에서 학리와 실지(實地) 연구에 근거하여 나온 것이므로, 도면에도 기사에도 학리에 반하는 것, 실행할 수 없는 것은 하나도 없다고 믿는다.”라고 쓰고 있다.⁴⁵ 즉 체신성의 공인이 이 책의 주된 독자가 될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반감을 불러일으키기보다는 본인의 전문가로서의 권위를 선전하는 데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체신성이 보유한 정보·자원·인력은 몇몇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남들에 앞서 지식과 정보를 얻어 선구자로 이름을 알리게 되는 데에도 기여했다. 당시의 아마추어 무선 실험가들은 대부분 독학으로 라디오 지식과 기술을 익힌 이들이었는데, 이들의 경력 발전에 결정적이었던 해외 정보는 군·관의 연구나 체신성 축탁으로 얻은 해외 시찰의 기회를 경로로 하여 입수한 경우가 적지 않았다.

예를 들어 도마베치가 무선 실험가의 길로 들어서게 된 때는 체신성의 실험 및 체신성 기사와의 개인 관계가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도마베치는 도쿄 출생으로, 1911년 와세다실업학교 본과 졸업 후 나가노 중학에서 잠시 영어와 유도를 가르치고 지원병으로 1년간 복무한 경력이 있었을 뿐 무선 기술과는 연이 없었던 인물이다. 그런 도마베치가 무선 전문가로 성장하게 되는 데에 “우연히 정부가 관장하여 실용화할 방침으로 체신성에서 개발 중이던 무선전화를 보고 감격”한 일이 중요한 계기가 되었다. 그 후 도

1925) 등을 쓴 당시 아마추어 무선가 이토 에이지 또한 아마추어들 사이에 라디오 방송을 실시하고 싶다는 열의를 북돋운 ‘자극’의 원천으로 선구적인 아마추어 실험가뿐 아니라, 체신성 전기시험소 기사들의 이름과 그들의 실적을 든다. 伊藤永止, 「放送開始25周年記念放送開始當時の思い出」, 『ラジオ科学』 8卷 3号, 1950, 10쪽.

45 安藤博, 『無線電話之研究』, 3~4쪽.

마베치는 1915년부터 1918년까지 약 4년간 이 ‘체신성식 무선전화’를 완성한 체신성 기사 사에키 미쓰루(佐伯美津留)의 지도를 받았다. 그리고 이때 얻은 지식을 바탕으로 고마고메 하야시초(駒込林町) 소재 자택에 ‘무선전화연구소’라는 간판을 내걸고, 부품 제작·조립 등을 시도했다. 이후에도 쓰키치(築地)에 있던 체신성에 다니기 쉽도록 근처로 이사할 정도로 도마베치에게 체신성은 주된 지식의 원천이었다.⁴⁶ 이렇게 얻은 지식을 활용하여 1921년 중립무선연구소를 설립하고, 라디오를 제작하여 발 빠르게 공개실험에 나섰다. 학교·군대·공회당·전람회장 등을 순회 강연하면서 이름을 알렸던 것이다.

한편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실험을 개시하자, 이들의 전파를 군이 수신하여 실험에 참고했던 정황도 발견된다. 도마베치는 “1922년 가을 무렵부터는 하마치연구소·중립무선연구소 등으로부터 20와트 정도의 전파가 발사되어, 육군의 오쿠보 이치오쿠(大久保一億) 대좌 등은 이들의 전파를 받아, 연구상에 크게 도움이 되었다고 언급한 바 있다.”라고 밝혔다.⁴⁷ 군·체신성·아마추어 무선가 사이의 긴밀한 협조와 상호 양해는 다음과 같은 일화에서도 확인된다. 도마베치는 1924년 무렵에 비공식적인 단파 실험 방송을 실시했는데, “오쿠보(大久保)·다카다(高田) 등, 육군 관계 인물들에게 오늘 밤 몇 시부터 몇 시까지 하므로 들어 달라”고 ‘은밀히’ 알려 준 후 그들을 상대로 방송했다고 한다. 군 관계자들이 자신들의 “이름을 팔면 육군에도 실례가 되므로 체신성 관료라면 괜찮지 않겠느냐.”라고 하여, 그다음에는 체신성의 다니무라 이사오(谷村功)를 상대로 실험 방송을 실시했다는 것이다. 도마베치는 실험 당시에 허가를 받지 않아 “원칙적으로는 처벌을 받아야 마땅하지만, 그 무렵 체신성이 그다지 까다롭게 뭐라 하지 않았기에 잇따라 방송을 내보냈”다고 회고했다.⁴⁸

46 勝田重太郎, 「電波界列伝: 苫米地貢」, 26~27쪽.

47 苫米地貢, 「創業前後の回顧: 主としてアマチュアの立場から」, 264쪽.

48 網島毅 外, 「座談會電波界今昔」, 『電波時報』13卷 6号, 1958, 44~45쪽. 다카다의 이름은 확인하기 어려우나, 오쿠보는 위에서 언급한 오쿠보 이치오쿠 대좌로 추정된다.

위의 협조와 양해가 비공식적으로 이루어졌다면, 공공연하게 이루어진 공조 관계도 있다. 바로 몇몇 대표적인 무선 실험가들이 체신성 촉탁으로 구미 시찰의 기회를 얻었던 점이다. 하마치 쓰네야스·도마베치 미쓰구 등은 체신성 촉탁으로 유럽과 미국의 라디오 기술과 이용 상황을 현지 조사할 수 있었다. 다카하시 유조에 따르면, 하마치는 전 체신대신인 노다 우타로(野田卯太郎)와의 친분 덕분에 정식 방송 개시 전에 구미 라디오 방송계를 시찰할 기회를 얻고 체신성 촉탁이 되었다고 한다. 노다는 하마치가 간행한 잡지 『라디오』에 전 체신대신이라는 직함을 달고 창간 축사를 써 주기도 했다.⁴⁹ 반면 도마베치는 체신성과 방송국 촉탁으로 구미 시찰 기회를 얻은 것을 두고, “과거 12년간 때로는 연구실에, 때로는 거리에 서서 열변을 토하고, 다년간 물질적으로 혜택 받지 못한 처지에 처하여 분투노력한 고생의 일부를 인정받아”서라고 자찬했다.⁵⁰ 도마베치는 마르코니에게 직접 사사 받은 것으로 명성을 떨쳤는데, 이것 또한 체신성 촉탁으로 유럽을 방문했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주목을 요하는 점은 저명한 무선 실험가가 체신성의 환대와 지원을 받는다는 사실을 당시 아마추어 무선가 대상의 통속 과학 잡지에서 자랑스러운 일로 특필한 것이다. 1925년 도마베치가 방송협회 촉탁으로 구미 시찰 여정에 오르던 날 요코하마행 열차를 타기로 한 도쿄역에는 환송 행렬이 이어졌고, 『무선과 실험』은 이 현장을 상세히 보도했다. 환송을 위해 체신성과 도쿄방송국 간부들이 속속 도착했는데, 체신국 감독 과장·체신성 나카고(中郷) 과장, 방송국에서는 신묘(新名) 이사·방송부 대표·기술부 대표·핫토리(腹部) 방송부장 등이었다. 기사는 도마베치를 ‘본지 주간’으로 지칭했고, 현장에 기수들이 ‘무선과 실험’과 ‘중립무선강습소’ 깃발을 들고 있었음을 전했다.⁵¹ 즉, 아마추어 무선을 상징하는 민간 잡지·사설 연구소의 활동

49 高橋雄造, 『ラジオの歴史: 工作の(文化)と電子工業のあゆみ』, 42~43쪽.

50 苦米地貢, 『大無線学集粹』上, 無線実験社, 1926, 3쪽.

51 『欧米視察之記: 本誌主幹の横濱出發』, 『無線と実験』3卷 6号, 1925, 720쪽. 인물들의 성만 언급하여 이름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신묘는 도쿄방송국 상임이사였던 신묘 나오키즈(新名直和)로 추정된다.

은 관이나 방송국의 활동과 자연스럽게 얽히고 겹쳤고, 도마베치의 환송은 이 점을 독자들에게 여실히 드러내 보여 주는 현상이었던 것이다.

1926년 구미 시찰을 마치고 돌아온 도마베치의 귀국 피로회 현장 또한 『무선과 실험』 기사로 특필되었다. “주간의 구미 외유를 음양으로 후원한 조야의 명사를 초대하여” 제국 호텔 대식당에서 대대적으로 치렀다는 점이 강조되었다. 이 기사에 따르면 내방한 명사는 도쿄방송국 총재 고토 신페이(後藤新平)를 포함한 50여 명이었다. 고토 신페이 이외에도 체신성과 방송국 관계자 가운데 체신성 전무국장·체신성 공무국장·체신성 공무국 전신과 2인·체신성 전무국 업무과 2인·체신국 감독과 전신계장·도쿄방송국 방송부장·도쿄방송국 기사 등이 참석했다.⁵² 이런 사실이 『무선과 실험』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잡지 주간의 권위와 명성을 선전하는 데 활용된 점은 주목을 요한다. 당시 독자들이 관을 아마추어 무선가와 무관한 영역 혹은 원치 않는 규제를 가하는 분개의 대상으로만 본 것은 아님을 시사하기 때문이다.

한편 라디오 도입기 무선 관련 상업 종사자는 흔히 국가와 무관한 이들로 가정되었으나, 당시 사료를 면밀히 살펴보면 그렇지만도 않았다. 라디오 수신기 완제품 생산 라인이 일본에서 대대적으로 가동되기 전인 1920년대 초반에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수입품과 부품을 손에 넣을 수 있는 라디오 상점은 정보와 물건과 사람이 만나는 중요한 접점이었다. 이바라키 사토루는 ‘라디오 상점다운 라디오 상점’의 시초로 “미타(三田) 경찰서 건너편에 해군 무선 기사(技師) 도치오리가 동료와 같이 하던 곳”을 꼽고, “거기에 가면 해군에 있을 법한 무선 부품이 뭐든 있었”다고 회상했다.⁵³ 이바라키는 상점명을 언급하지 않았으나, 라디오 산업 20년을 기념하는 회고 좌담회에서 전(前) 다나베상점(田辺商店) 대표이자 전 도쿄라디오상조합(東京ラジオ商組合) 조

나카고(中郷)로 우선 표기했으나 ‘주교’ 등 다른 읽기를 사용할 가능성도 있다. 체신성 사무관으로 재직 후 방송협회 본부사업부장을 지낸 中郷孝之助로 추정되나 이 인물의 공식적인 읽기는 확인된 바 없다.

52 本誌記者, 「欧米の視察を了へて主幹歸朝の披露會」, 『無線と実験』 4卷 5号, 1926, 635쪽.

53 茨木悟 外, 「創刊50年記念大座談會: 『無線と実験』50年の歩み」, 133쪽. 원문에는 ‘栃織’로 되어 있으나 일본어 읽기가 같은 ‘栃折’의 오기로 보인다.

합장인 다나베 아야오(田辺綾夫)가 같은 위치에 있었던 도치오리(栃折)의 라디오 상점으로 언급한 일본무선전화공업소(日本無線電話工業所)로 추정된다.⁵⁴ 따라서 라디오 기술 도입기에 관청 및 군의 영역과 아마추어 무선가의 세계는 상업 활동에서도 반드시 배타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요컨대 당대 사람들은 군·관과 아마추어 무선가의 세계를 당위적으로 이분되어야 하는 것으로만 보지 않았으며, 둘 사이에 경계가 있었다 하더라도 구멍투성이었던(porous) 것이다. 이러한 전간기의 현실은 당시의 통속 무선 잡지에도 잘 드러난다. 실험용으로 허가받지 않은 라디오 송신이 금지되면서 소위 전파를 통한 쌍방향 소통은 제한되었지만, 대중적인 아마추어 무선 잡지가 속속 발간된 덕에 인쇄 매체상의 소통은 오히려 활성화되었다. 아마추어 무선가를 주요 독자로 상정한 잡지들은 국가의 규제로 전파 공론장이 사라진 뒤에도 존속했던 지면상의 아마추어 무선가 공론장이나 국가와 무관한 자유로운 개인들의 내밀한 담론 공간으로 비치기 십상이다. 그러나 필자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실상은 달랐다. 체신성 관계자는 물론이고, 정식 방송 개시 이후에는 방송국 관계자를 발견하기 어렵지 않다. 이들도 아마추어 실험가나 민간 연구소원과 구별 없이 참여하여 기술을 소개하고 의견을 개진했다.

『무선과 실험』 관계자들의 창간 당시에 대한 회고는 실제로는 더 많은 필자가 관청 소속이었음을 시사한다. 필자 가운데 무선 관련 ‘관청 관계 인물’이 많았으나 이들은 종종 필명을 사용했다는 것이다. 이바라키 사토루는 전파생(電波生)과 같이 ‘전’(電)이 들어간 필명을 쓴 이들은 “모두 체신성 전기시험소(電気試験所)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회고한다.⁵⁵ 군 소속 기술 연구

54 「ラジオ産業廿年回顧座談會」, 岩間政雄, 『ラジオ産業廿年史』, 無線合同新聞社事業部, 1944, 133쪽. 도치기도 다나베도 도치오리의 성(姓)만 언급하여 이름을 확인하기 어려우나, 간토대지진 당시에 레야마루에서 지진에 관한 관보를 발신한 해군 통신사 중 한 명인 栃折喜三일 가능성이 크다. 「前編3章 無線電信講習所の発展」, 電気通信大学六十年史編集実行委員会 編, 『電気通信大学六十年史』, 調布: 目黒会, 1980. 온라인 공개, 쪽수 미표시, <http://www.museum.uec.ac.jp/60th-anniversary/zenpen/ch03-3.html>(최종 검색일: 2020. 11. 17.). 喜三는 기조, 요시조, 기미, 기사부 등으로 읽히나 이 인물의 읽기는 확인되지 않았다.

55 아사노 이사무(浅野勇)와 이바라키 사토루의 회고. 茨木悟 外, 「創刊50年記念大座談会: 『無線と実

원들도 이들 아마추어 무선가 잡지가 떠받치고 있던 과학 공동체의 일원이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무선과 실험』의 50주년 기념 좌담회에서 주요 ‘공헌자’로 언급된 인물 가운데에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중에 제7육군 기술연구소(第7陸軍技術研究所)에 소속되었던 고바야시 요스케(小林庸介)도 있었다. 고바야시는 패전 후 미군 점령기인 1949년 시점에 『무선과 실험』 편집장을 지냈고,⁵⁶ 전후 일본의 부흥을 위해 라디오가 담당해야 할 역할을 권두언에서 논하기도 했다.⁵⁷

선행 연구에서 크게 다뤄지지 않았으나 주목을 요하는 또 하나의 사실은 군·관과 아마추어 무선가의 활동과 담론 공간의 중첩이 제국을 횡단하여 이루어진 것이다. 이 글은 선행 연구에서 소개된 적 없는 두 가지 사료에 주목하여 이 점을 보일 것이다. 첫 번째 사료는 중립무선연구소 이즈카 료조(飯塚良造)가 『무선과 실험』에 쓴 조선 시찰 보고다. 이즈카는 1926년 2월 9일에 조선으로 떠났는데, “방송 개시 이전부터 우리 중립무선(연구소)은 무선 과학 보급을 위해 동분서주하여, 내지(內地)는 전국에 걸쳐 족적을 남겼으나, 너무 바쁜 탓에 조선은 기회가 없었는데, 이번에 잠깐 겨를을 얻어서 그 첫걸음으로 조선 라디오를 시찰하러 나서게 되었다.”라고 당시의 상황을 밝히고 있다. 조선에 도착한 이즈카의 첫 행선지는 바로 그가 조선 방송의 ‘수뇌부’라고 규정한, 총독부 체신국 공무과(工務課)였다. 거기서 이즈카는 ‘라디오 방송 전담 기사’인 우메다(梅田)·시노하라(篠原)와 면담하고 시노하라의 안내로 방송실을 견학했다. 아울러 이즈카는 『무선과 실험』 독자들에게 다음과 같은 ‘사사키(佐々木) 과장으로부터의 의뢰’에 응해 줄 것을 당부하고 있다. “내지의 열심인 [라디오]애호가(ファン) 제군 가운데 혹시 조선의 방송이 잡히는 경우에는 그때의 참고가 되는 각종 상태를 체신국 공무과 앞으로 보고해 달라”는 것이다.⁵⁸

『무선과 실험』 50년의歩み, 132쪽.

56 茨木悟 外, 「創刊50年記念大座談会: 『無線と実験』50年の歩み, 133쪽

57 小林庸介, 「復興文化建設とラジオ」, 『無線と実験』 36卷 1号, 1949, 1쪽.

58 飯塚良造, 「朝鮮に於けるラヂオ界の視察記」, 『無線と実験』 4卷 6号, 1926, 732쪽.

위의 사료에서 전간기의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식민지 또한 라디오 방송을 '민중화'해야 할 대상으로 의식했던 점을 알 수 있다. 또한 사설 무선 연구소원들의 활동이 제국의 방송 사업과도 무관하지 않았던 점도 분명하다. 무엇보다 사설 무선 연구소원들과 제국의 방송 기술자 모두가 자신들 사이의 공통된 관심과 인적인 연결을 아마추어 무선가들에게 공공연히 드러내고, 아마추어 무선가들을 제국의 방송 사업 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자원으로 인식하여 이들의 참여와 협조를 독려하고 있는 점이 특기할 만하다. 『무선과 실험』 같은 잡지가 제국 방송의 '수뇌부'가 공과 사를 넘나드는 협조를 아마추어 무선가들에게 요청하고 장려하는 장으로 활용되고 있는 점도 중요한 발견이다.

두 번째 사료는 『라디오의 일본』이 방송국의 방송 개시를 기념하여 「라디오[방송]를 수신하고」(ラヂオを受けて)라는 제명 아래 마련한 연재 기사다. 방송국의 개설로 개인 아마추어 실험가가 성취할 수 없는 장거리 발신 가능해진 덕분에 조선과 중국·사할린 일대에서도 불안정하게나마 방송을 수신한 사례가 나왔는데, 이에 대해 당시 조건을 보고하고 개선할 점을 제안하는 것이 기사의 내용이었다. 1926년 1월호부터 1927년 12월호까지, 1927년 5·7·8·9월호를 제외하고 매월 1건에서 5건 사이의 투고 원고를 소개하여, 총 63건의 기사가 게재되었다. 몇몇 예외를 제외하고는 투고자의 이름·거주 도시·소속 기관이나 직함이 표시되었는데 일본 각지, 나아가 경성·평양·베이징·사할린에서도 투고가 이루어졌다.⁵⁹

대중적인 통속 과학 잡지들이 조선·타이완·만주국 등에도 유통된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이 사료는 이에 비해 잘 알려지지 않았던 중요한 역사적 정황을 드러내 준다. 바로 아마추어 무선 잡지의 저자와 독자 가운데 일본의 공식·비공식 식민지에서 근무하던 이른바 '제국의 기술자'가 적지 않았던 점이다. 소속 기관·직함 가운데 전기시험소 평양출장소(3회)·조선총독부 체신기사·조선체신국 공무과·가라후토(樺太) 오도마리(大泊) 무선국장,

59 「ラヂオを受けて」, 『ラヂオの日本』 1926年2月号~1927年12月号(1927年5月号, 7~9月号 제외).

그리고 베이징청와이 슈양치아오 무선전대(北京城外双橋無線電臺) 미쓰이물산 주식회사 기사가 있었다.

아울러 「라디오[방송]를 수신하고」연재 기사 가운데에는 체신성 전기시험소를 포함하여 일본 국내 각지의 전기·무선·전신·철도 관련 관청 소속 저자가 9건이었고 방송국 소속 저자가 2건이었다. 일반 저자의 경우에 일본 각지의 저자에 더하여, 경성에 거주하는 저자가 투고한 글이 5건, 평양 거주자의 글이 2건이었다. 따라서 이 연재 기사는 독자에게 방송 수신을 매개로 일본이라는 국민국가는 물론이거니와 제국의 심상지리를 형성하는 하나의 기제로 작용할 수 있었다. 또한 투고자인 제국의 기술자와 아마추어 무선가가 라디오 방송을 매개로 자연스럽게 섞여 들어가는 담론 공간을 형성했던 것이다.

위에서 언급한 일련의 역사적 정황은 국가와 아마추어 무선가의 관계를 일방적인 규제의 주체와 객체로 이분하는 기존의 접근법으로는 설명할 수 없다. 요컨대 군·관과 아마추어 무선가의 활동의 경계는 많은 경우에 이분법적으로 구획된 것이 아니었다. 그들 사이의 긴밀한 상호 작용은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졌으며, 때로는 법의 규제나 공식적인 틀도 유연하게 넘나들며, 때로는 공공연하게 공조 사실을 선전하며 이루어졌다. 일본 본토와 식민지를 아우르며 전개되었던 이러한 긴밀한 상호 작용은 아마추어 무선가의 공론장으로 간주되었던 통속 과학 잡지와 같은 담론 공간에도 반영되었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존재 양태를 가졌던 상당수의 아마추어 무선가들에게 정식 방송은 과연 어떤 의미를 가졌을까? 다음 장에서는 이 점에 대해 논의한다.

4. 아마추어 무선가와 정규 방송의 안과 밖

방송이 일방향 발신으로 간주되기 시작하고 정규 방송 개시가 결정된 이후에 그 많던 아마추어 무선가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를 국가의 대극에 위치시키는 선행 연구에서는 정규 방송 개시 후 아마

추어 무선가들이 능동적인 발신자에서 수동적인 오디언스로 전락하거나,⁶⁰ 이를 받아들일 수 없었기에 새로운 무선 기술인 텔레비전 실험으로 관심을 돌린 것으로 설명되었다.⁶¹ 그러나 이 글에서 살펴본 것처럼 군·관의 세계와 뚜렷한 경계를 상정하지 않거나 그 경계를 넘나들었던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경우라면 어떤 선택을 했을까?

아마추어 무선가는 국가 감독 아래 실시된 정규 방송 밖에 존재했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믿음과 달리 당시 사료에 나타난 실상은 그리 단순하지 않다. 이들 중 상당수는 반드시 쌍방향 소통이 아니더라도 방송이 가져올 혜택의 ‘민주화’ 혹은 사회화에 관심을 표명했다. 그리고 경쟁적 내셔널리즘에 기초한 과학 내셔널리즘이 이러한 전환을 매개했다. 정규 방송을 승인한 경쟁적 과학 내셔널리즘의 논리는 1925년 『라디오의 일본』 창간호에 일본라디오협회장 아사노 오스케(淺野応輔)가 쓴 「일본라디오협회 설립에 관하여」라는 글에 잘 드러난다.

[무선 기술과 같은 ‘자연의 법칙’을 개발하고 응용하면] 산업의 진흥·국가의 방위·위생의 충실화 등, 인생의 문화를 발전시키는 바가 다대하다. 이런 자연의 법칙을 많이 개발하여, 많이 활용하는 국민은 번영하고, 이것을 등한히 하고 태만히 하는 국민은 쇠퇴하는 것은 실로 자연의 이치이다. 일본과 같이 국토가 협소하고 인구가 조밀하여 열강과 경쟁해야 하는 나라에서는 특히 이 점에 노력해야 한다. [중략] 다수의 청취자를 갖는 방송은 국가가 하루도 빼놓을 수 없는 필수 기관으로 삼아 석학·고승, 혹은 명사의 강연을 기십만 인에게 청취하게 하여 교화하는 일은 국민의 풍교상, 그리고 지육(智育)상 위대한 효과를 거둘 수 있을 것은 자명하다.⁶²

60 Mizukoshi Shin, "From Active Enthusiasts to Passive Listeners: Radio, the State and the Transformation of the Wireless Imagination," p. 67, p. 70

61 飯田豊, 『テレビが見世物だったころ: 初期テレビジョンの考古学』, 青弓社, 2016, 89~90쪽, 92~93쪽.

62 淺野応輔, 「日本ラヂオ協会設立について」, 『ラヂオの日本』 1卷 1号, 1925, 1~2쪽.

아마추어 라디오가 소수의 모험적인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전유물이었다면, 정규 방송은 더 많은 '민중'에게 혜택이 돌아가게 하고, 남자보통선거 실시로 새롭게 정치적인 주체로 떠오른 대중을 '교화'하는 데 도움이 될 보편 서비스로 상정되었다. 초기 라디오 잡지들도 기술 개발에 천착하는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기술 관련 논의뿐 아니라, 수신기 보급과 라디오 방송의 일상적인 활용이 필요함을 선전하고 계몽하는 내용도 함께 게재했다.⁶³

이런 시대 분위기에서 라디오의 '민중화'를 말로 주창하는 데 그치지 않고 실제로 정규 방송 사업에 참여하고자 한 아마추어 무선가들도 다수 존재했으며, 그 가운데에는 도쿄·오사카·나고야 방송국이나 방송협회에 몸담고 방송과 수신기 보급에 매진한 이들도 있었다. 1924년 5월 시점에 정리된 방송 사업 주요 출원자 일람에는 안도 히로시·이토 겐지·하마치 쓰네야스·히구치 우타로(樋口卯太郎)와 같은 아마추어 무선가의 이름이 올라 있었다.⁶⁴ 아마추어 무선가 가운데 도쿄방송국 설립에 관여한 이들도 있었다. 안도 히로시·이토 겐지·도마베치 미쓰구·가시마 아키라(加島斌) 등이 공동설립자로 도쿄방송국 허가 신청서에 이름을 올렸다.⁶⁵

방송협회에 입사하거나 조력한 아마추어 무선가의 수도 적지 않다. 이토 겐지의 경우에는 방송협회 창립에 기여한 공으로 1930년 공로자상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⁶⁶ 사실 무선 연구소원 가운데 방송국으로 자리를 옮긴 경우도 있다. 와세다실업학교에서 도마베치 미쓰구의 무선 관련 강의를 듣고 그의 권유에 따라 중립무선연구소 기술원으로 근무했던 이와타 에이이치(岩田英一)의 회고에 따르면, 당시 중립무선연구소 기술원 7~8인 정도

63 예를 들어, 北村政治郎, 「東京放送局仮放送の開始に當りて」, 『無線と実験』 3卷 1号, 1925, 1~2쪽; 北村政治郎, 「JOAK東京放送局仮放送設備の概要」, 『無線と実験』 3卷 2号, 1925, 164~169쪽; 千野米作, 「ラヂオの普及について」, 『無線と実験』 3卷 2号, 1925, 182쪽; 國米藤吉, 「聴取無線施設に就ての注意と希望」, 『無線と実験』 3卷 2号, 1925, 183~184쪽.

64 「放送事業主要出願者一覧(大13.5現在)」, 日本放送協會 編, 『放送五十年史資料編』, 日本放送出版協會, 1977, 161~162쪽.

65 「社団法人東京放送局許可申請書(大13.10.14)」, 日本放送協會 編, 『放送五十年史資料編』, 日本放送出版協會, 1977, 162~163쪽.

66 「創設者伊藤賢治のあゆみ」, 一般財団法人日本電子治療器学会, http://nihondenshi.xsrv.jp/hp/?page_id=1432(최종 검색일: 2020. 11. 30.).

가 방송협회로 이적했다고 한다. 그중 한 사람은 중립무선연구소 조수였던 나카무라 야스키치(中村安吉)다. 나카무리는 나고야 방송국에 파견되었다가 그대로 취직했고, 일본 최초 실황중계에 성공하면서 방송협회에 남았다.⁶⁷ 나카무리는 1955년에도 방송협회 관리부 촉탁 직함으로 라디오 도입 초창기를 회고하는 좌담회에 얼굴을 비쳤다.⁶⁸ 가토 구라키치(加藤倉吉)도 그중 하나다. 중립무선연구소 이사를 역임한 후 도쿄방송국 기사로 시보(時報)장치 개발에 힘쓰고, 방송협회 설립 후 기술부에 입사하여, 자동 시보장치 개발자로 활약했다.⁶⁹

이들 가운데 일부는 식민지의 방송 사업을 전개하는 데에도 가세했다. 이와타 에이이치는 경성라디오상회에서 6개월간(1928. 7.~1929. 1.) 근무한 경력이 있는데, 이는 바로 “경성 방송 설립을 위해 조선에 체류 중이던 도마베치의 소개로” 이루어진 일이었다고 한다. 경성라디오상회는 조선총독부의 후원을 받았으며, 경기도 순회 실험 때는 조선총독부 담당관이 실연을 지휘할 정도로 조선총독부와 긴밀하게 협력했다. 이와타도 경성라디오상회에 근무하는 동안 조선에서 라디오 기술을 지도하고, 라디오를 계발하고 선전하는 업무를 담당했다.⁷⁰

더 많은 아마추어 무선가의 구체적인 행적을 알아내기 위해서는 추가로 면밀한 연구가 뒤따라야 할 것이다. 이 글에서는 정규 방송 개시 이후의 아마추어 무선가의 전신(轉身)을 보여 주는 하나의 사례로, 도마베치 미쓰구의 통전기(通戰期, transwar) 행적을 소개하는 것으로 마무리하려 한다.⁷¹

도마베치는 1925년 8월부터 1926년 5월까지 체신성 촉탁과 도쿄방송

67 岩田英一·吉田健二, 「戦時抵抗と政治犯の釈放: 岩田英一氏に聞く(1)」, 『大原社会問題研究所雑誌』 653号, 2013, 45쪽.

68 小川菊松 외, 「座談会『30年前のラジオを語る』」, 『無線と実験』 42卷 5号, 1955, 98~103쪽.

69 가토의 더 자세한 시보 관련 이력에 관해서는 竹山昭子, 『ラジオの時代: ラジオは茶の間の主役だった』, 53~60쪽.

70 岩田英一·吉田健二, 「戦時抵抗と政治犯の釈放: 岩田英一氏に聞く(1)」, 45~46쪽.

71 'transwar'의 역어로 일본의 사학계에서는 '관전기'(貫戰期)가 널리 사용된다. '관전사'의 관점에 관해서는 中村政則, 『戦後史』, 岩波書店, 2005; 앤드루·고ordon, 「消費, 生活, 娯樂の『貫戰史』」, 倉沢愛子 外 編, 『日常生活の中の総力戦』, 岩波書店, 2006, 123~152쪽.

국 촉탁을 겸한 후, 1926년 방송협회에 정식으로 입사했다. 입사 후 패전 직후까지 방송망 확대와 수신기 보급에 매진한 제국의 방송 기술자였다. 주지과장과 보급부장을 거쳐, 1930년 12월 시점에서 간토지부 총무부 기획과장, 1940년 5월 시점에서 총무국 보급부장을 지냈다.⁷² 1927년 개국한 경성 방송 설립에도 관여했으며, 아시아·태평양 전쟁 당시에 군의 촉탁으로 지난(濟南) 작전에 투입되어 ‘모종의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다.⁷³ 1946년 12월에 본인 의사에 따라 퇴직했다.⁷⁴ 퇴직 이후에도 방송협회와의 인연은 계속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도마베치는 1955년에도 방송협회 기술심의위원직에 있었다.⁷⁵

전간기에 경쟁적 과학 내셔널리즘을 강하게 내비쳤던 도마베치는 방송협회에 입사한 후에도 “방송협회의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국가를 위해서” 라디오를 보급해야 한다는 신념을 표명했다. 1936년 시점에는 “보급책의大本(大本)은 국가 만년의 복지를 바라는 시설과 운영”이라는 소신을 밝혔다. 아울러 방송 사업의 ‘생명’은 “일관된 지도 정신을 갖고 권세에 굴하지 않고 대중에 아부하지 않고 모든 사회로부터 한 발 초연한 점”에 있다고 주장했다. ‘공익’ 방송의 이상으로 흔히 거론되는 권력과 자본으로부터의 독립과 중립을 염두에 둔 발언으로 보이는데, 한 가지 유의할 점은 같은 글에서 도마베치가 “라디오가 국책 기관인 이상, 적극적으로 청취자를 증가시켜야 한다”는 인식을 드러내고 있기도 한 사실이다.⁷⁶ 국가의 감독 아래 놓인 독점 사업체였던 방송협회에 사적인 이익을 초월한 모종의 공공성을 부여하는 식으로 공익 방송의 이상과 국가 전체의 복지를 위한 라디오 보급이라는 사명을 양립시킨 것으로 읽힌다.

72 아래에서 소개하는 그의 전시 저작에 쓰인 직함에 따라 작성한 것으로 직함을 처음 단 시점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73 지난 작전 당시 중국 현지 경험담에 대해서는 苫米地眞, 「無線生活二十七年想出ところどころ」, 『マツダ新報』 27卷 7号, 1940, 37~39쪽. 어떤 임무였는지는 밝히지 않고 있다.

74 勝田重太郎, 「電波界列伝: 苫米地眞」, 27쪽.

75 1955년 『무선과 실험』에서 마련한 좌담회에 이 직함을 달고 참석했다. 小川菊松 外, 「座談会『30年前のラジオを語る』」, 98~103쪽.

76 苫米地眞, 「ラジオの普及性と普及方法に就て」, 『教育』 4卷 12号, 1936, 124~126쪽.

실제로 도마베치는 나치 독일을 모델로 한 ‘일호일수신기=국기와 라디오는 집집마다’를 표어로 수신기 보급에 매진했다. 도마베치가 보기에 라디오가 전 세계적으로 보급되고 “대중에게 어필할” 수 있는 것은 “수신 설비를 갖춘 사람이라면 왕후·귀족도 어부·농민도 대등한 내용을 듣는다는 점”, 즉 “계급성을 타파하기” 때문이었다.⁷⁷ 문제는 당시에 라디오가 고가품이었던 탓에 일본의 수신기 보급률이 1944년 이전에 5할에도 미치지 못했던 점이다. 즉, 현존하는 경제 불평등 속에서 일호일수신기를 달성하여 모두가 ‘대등’하게 방송을 듣는 것이 방송협회의 주지·보급부서장이었던 도마베치의 이상이었던 것이다.

미디어 연구자 사토 다쿠미(佐藤卓己)는 이러한 도마베치의 계급성 타파 담론을 ‘팔굉일우’(八紘一宇) 이념에 직결시켜 도마베치를 ‘초국가주의자’라고 재단한다.⁷⁸ 물론 본토뿐 아니라 만주와 중국의 청취자가 지위 고하에 관계없이 동시에 같은 라디오 제조의 호령에 맞춰 같은 동작을 하는 것 외와 같은 계급성 타파의 ‘비교 불가능한 최고의 예’로 든 것만 보더라도⁷⁹ 도마베치는 제국의 기술자로서의 정체성이 강한 인물이었다. 중일 전쟁과 태평양 전쟁 발발로 전황이 급박해지고 팔굉일우의 구호가 일반화된 이후에 도마베치는 라디오 보급률을 향상시키기 위해 국가의 통제 아래 국가가 인정하는 표준형 수신기를 생산하고 수급하는 정책을 지지했다. 그는 이 ‘국형(局型) 수신기’를 ‘국방국가의 귀’에 비유했으며, 국형 수신기 통제 정책을 정당화하기 위해 “배급 관계를 조달하여 우리 동아 공영권의 구석구석까지 유통하여 [중략] 일본이 확실한 동아의 맹주가 될 것을 기대해야만” 하기 때문이라는 논리를 펼치기도 했다.⁸⁰

그러나 도마베치는 방송 내용에 관해서는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권

77 苦米地貢, 「ラヂオの普及性と普及方法に就て」, 121쪽, 124쪽.

78 佐藤卓己, 『テレビ的教養: 一億総博知化への系譜』, 33~34쪽.

79 苦米地貢, 「ラヂオの普及性と普及方法に就て」, 122쪽.

80 苦米地貢, 「局型受信機の配給統制に就て」, 電気普及会九州支部受信機普及九州委員会 編, 『受信機普及九州委員会協議会記録 第4回』, 熊本: 電気普及会九州支部受信機普及九州委員会, 1941, 44쪽, 49쪽, 52쪽.

세에 굴하거나 대중에 영합하지 않고 지도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계몽적인 원론을 강조하는 이외에 크게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오로지 값싸고 성능 좋은 수신기를 다량으로 신속하게 보급하는 것이 국가의 안위와 복지에 이득이 되리라는 생각으로 만전을 당부할 뿐이었다.⁸¹ ‘신국’(神國)과 같은 당대의 상투어를 사용하긴 하지만,⁸² 강대국들이 라디오를 이용하여 행한 선전전을 다룰 때조차 건조하게 각국의 주요 라디오 방송 사례를 소개할 뿐, 천황제 이데올로기나 자민족 지상주의 이념을 크게 드러내지는 않았다.⁸³ 미국과 같은 나라들에 비해 부족한 일본의 수신기 수와 보급률을 개탄하고 수신기 보급을 강조할 뿐이었다.⁸⁴

자본주의의 위기와 총력전 상황에서 관리 국가 모델을 지향했던 당대의 기술 관료들의 그것과 크게 차이나지 않는 태도로 볼 수 있지 않을까?⁸⁵ 이들을 무조건 ‘초국가주의자’로 싸잡아 진지한 분석의 대상으로조차 삼지 않는 것이 전시 변혁 시도를 포함하는 일본 사회의 구조적 변동과, 국가·사회·개인에 대한 당시의 지배적인 사고방식이 성립했던 맥락을 냉정히 들여다 볼 기회를 빼앗는 것과 마찬가지로,⁸⁶ 도마베치에 붙은 초국가주의자라는 꼬리표도 이 인물에 대한 차분한 분석을 차단할 위험이 있다. 어쨌든 도마베치가 전후에 초국가주의자로서 전범으로 지목되거나 공직 추방의 대상이 되었다는 이야기는 현재까지 알려진 어떤 자료에도 언급된 바 없다.⁸⁷

도마베치를 초국가주의자로 보든 아니든, 한 가지 분명한 것은 경쟁적

81 예를 들어 苫米地眞, 「ラヂオ聴取者の増加運動」, 『マツダ新報』 25卷 4号, 1938, 2~13쪽.

82 苫米地眞, 「防空とラヂオ」, 電気普及会 編, 『灯火管制読本』, 電気普及会, 1938, 32쪽.

83 苫米地眞, 「デマは乱れ飛ぶ電波戦」, 『実業の日本』 42卷 19号, 1939, 152~155쪽; 苫米地眞, 「世界電波戦物語」, 『実業の日本』 45卷 7号, 1942, 57~59쪽.

84 苫米地眞, 「事局と放送事業」, 『マツダ新報』 28卷 7号, 1941, 41쪽.

85 전시 기술 관료의 사고방식에 관해서는 Janis Mimura, *Planning for Empire: Reform Bureaucrats and the Japanese Wartime State*, Ithaca: Cornell University Press, 2011; Hiromi Mizuno, *Science for the Empire: Scientific Nationalism in Modern Japan*, pp. 43~68 참조.

86 이러한 맥락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는 글로는 米谷匡史, 「戦時期日本の社会思想: 現代化と戦時変革」, 『思想』 882号, 1997, 69~120쪽.

87 총리청 관방감사과에서 1949년 펴낸 약 20만 명에 달하는 공직 추방자 명부에도 도마베치의 이름은 보이지 않는다. 総理庁官房監査課 編, 『公職追放に関する覚書該当者名簿』, 日比谷政経会, 1949, 一般該当者名簿 672쪽.

과학 내셔널리즘에 기초하여 라디오의 보급을 국가의 안위에 연결지우는 전간기의 사고방식이 전시 언설에도 지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위로부터 대중을 계몽하려던 태도 역시 방송의 ‘지도 정신’을 강조하는 전시 저작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리고 이와 같은 사고방식과 태도는 전후에도 크게 바뀌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패전 후 미군 점령기에 방송법을 포함한 전파 관련법을 개정하면서 무선 방송에 대한 규제를 철폐하려는 움직임이 구체화되자, 도마베치는 무선에 대한 규제를 옹호하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이다.

도마베치는 퇴직 후인 1950년 2월에 전파법안과 전파감리위원회 설치 법안에 관한 국회 공청회(電波法案及び電波監理委員會設置法案に関する公聴會)에 공술인으로 참석하여 법안에 관해 의견을 개진했다. 이때 도마베치는 “일본의 전파 문화에 크게 공헌할 획기적인 법률”로서 전파법을 환영하면서도, “이 전쟁 전에 있었던 것 같이 옳아때는 법률로부터, 이번에는 뭐든 민주주의라는 식으로, 우에서 급히 좌로 너무 가버려서, 이 법률에도 약간의 결함이 있는 것으로 생각합니다.”라고 우려를 표했다. 아마추어 무선국을 대폭 허가하는 방침에 대해서도 “그저 기술적인 시험만 강조되어 사상적 방면과 인격, 그 배경이라는 방면이 고려되지 않는 것처럼 생각되므로, 특히 그 점에 대해서는 [전파]감리위원회 사무국·전파청 등이 설립되더라도 충분히 연구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라는 입장을 표했다.⁸⁸

달리 말해 방송 내용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개인의 사상이나 자질을 고려하여 국가가 아마추어 무선국을 운영할 자격이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 규제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친 것이다. 흔히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 이력을 가진 이들로부터 기대하는 것과는 상반된 반응이지만, 위로부터의 계몽을 꾸준히 옹호했던 도마베치의 엘리트주의에 비추어 보면 놀랄 만한 태도는 아니다. 도마베치는 전시에도 수신기 제작 공장 간부들의 ‘인격’을 따져 “도덕적으로 혹은 법적으로 여러 의미에서 올바르지 않은 사람인 경우 표준

88 「第7回国会衆議院電氣通信委員會公聴會第3号 昭和25年2月10日」, <https://kokkai.ndl.go.jp/#/detail?minId=100704848X00319500210¤t=2>(최종 검색일: 2020. 11. 27.).

수신기 생산자로 지정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삼았고, 공장 간부들에게도 개별 공장의 제품뿐 아니라 라디오의 보급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그러한 ‘지도 정신’을 직원들에게도 들려줘야 한다고 강연한 바 있다.⁸⁹

경쟁적 과학 내셔널리즘을 내면화한 아마추어 무선가·제국의 방송기술자·전후 무선 규제론자로 이어지는 도마베치 미쓰구의 통전기 전신은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를 주로 국가에 저항한 자유로운 개인이자 정규 방송의 바깥에 존재했던 이들로 바라봐 온 시선에 문제를 제기한다. 위에서 보았듯 정도나 방식의 차이는 있지만 경쟁적 과학 내셔널리즘과 방송 참여 경험을 공유했던 다수의 아마추어 무선가가 존재했던 점을 기억한다면, 유별나게 국가주의적이었던 한 개인의 문제로만 치부할 수는 없을 것이다.

5. 맺음말

지금까지 ‘정식’ 방송에 앞서 라디오라는 당시 최첨단의 기술을 수용하고 활용했던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언설과 행적을 분석하여, 이들이 국민국가/제국 단위의 경쟁적 국제 질서라는 당대의 조건 안에서 라디오의 신기술을 받아들였으며, 이들 사이에 경쟁적 과학 내셔널리즘이 만연해 있었던 점을 드러냈다. 또한 상당수의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무선 관련 이력을 쌓고 라디오 기술을 ‘민중화’하는 과정에서 제국의 본토와 식민지를 넘나들며 군·관과 긴밀하게 공조하고, 통속 무선 잡지와 같은 담론 공간 또한 공유한 정황도 보였다. 이러한 사고방식과 존재 양태 덕분에 상당수의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일방향 커뮤니케이션으로서의 정규 방송 사업에도 자연스럽게 참여했던 사실 또한 분명히 했다.

선행 연구에서 주변화되었던 위의 정황은 방송사 연구에서 유독 공고하게 유지되어 온 민주적이고 리버럴한 전간기와 억압적이고 파시스트적인

89 苫米地貢, 「ラジオ聴取者の増加運動」, 4쪽, 12~13쪽.

전시 사이의 대비를 전제로 한 냉전 자유주의 시각의 역사 서술 방식에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아마추어 무선가와 국가 사이에 견고한 벽을 상징함으로써만 성립하는 전간기 전파 공론장 신화를 다시 보게 한다. 국가의 규제에 저항했던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존재가 미미했다는 이야기가 아니다. 이들과 마찬가지로 제도권 교육 밖에서 신기술을 자력으로 습득한 자율적이고 진취적인 개인이면서도, 경쟁적 과학 내셔널리즘과 제국 질서를 내면화하고 이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군·관 및 정규 방송국과 관계를 맺었던 다수의 아마추어 무선가들이 존재했던 점을 함께 고려하자는 것이다.

도마베치 미쓰구의 통전기 행적이 단적으로 시사하듯, 상당수의 아마추어 무선가의 사고방식과 정규 방송 개시 이후의 활동 궤적에는 국가의 규제나 강요로 인한 굴절보다는 일관성과 연속성을 찾아볼 수 있다. 이 글에서 밝힌 것처럼 대다수의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는 라디오라는 신기술을 두고 국경을 넘는 상상력을 발휘하기보다는 오히려 국민국가 단위의 위계적인 세계 질서 안에서 국가/제국 간 경쟁의 상징이자 수단으로 인식했기 때문이다. 이러한 일관성과 연속성이 민간 아마추어 문화가 기술 보국으로 편성된 숨은 이유나, “국가를 넘는 아마추어가 문자 그대로 초국가주의자인 경우”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간주되어서는 곤란하다.⁹⁰ 파시스트적인 전시의 이미지를 전간기에 소급 적용할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요컨대 이들 아마추어 무선가들의 언설과 행적은 오히려 전시의 이미지를 목적론적으로 투사하지 않고 전간기 일본을 볼 때 온전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라디오 기술의 보급과 향유가, 개인화와 국민화의 동시 진행 및 경쟁적 국제 질서 안에서 이루어진 제국의 팽창이라는 현실과 맞물렸던 특정한 시기로서 말이다. 제도권 교육 밖에서 신기술을 독자적으로 실험하고 체득한 선구적이고 혁신적인 개인이면서 동시에 제국과 국민국가의 일원으

90 佐藤卓己, 『テレビの教養: 一億総博知化への系譜』, 32~33쪽. 사토는 이따의 다음 연구에 기대어 아마추어 문화가 기술 보국으로 직결된 것으로 본다. 飯田豊, 『放送』以前におけるテレビジョン技術社会史の射程: 昭和初期における公開実験の変容をめぐって, 『マス・コミュニケーション研究』 67号, 2005.

로서의 뚜렷한 정체성을 드러냈던 상당수의 전간기 아마추어 무선가들은 당시의 맥락에서는 자기 모순적인 존재가 아니라, 전간기의 이러한 역사적 현실을 상징적으로 체현한 존재들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위와 같은 주장으로 이들의 사고나 행적을 승인하거나 정당화하려는 것이 아님을 강조해 두고 싶다. 이들의 사고방식과 행적은 당시의 제국 질서와 마찬가지로 비판적으로 보아야 한다. 하지만 전전 일본의 국가와 연관된 것은 모두 전체주의나 파시즘에 연결시켜 단죄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냉전 자유주의 시각 또한 상대화할 필요가 있다. 그럴 때 이들의 사고와 행위의 회로뿐 아니라 그 문제점과 한계도 보다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을 것이다.⁹¹

그리고 전간기 아마추어의 사고방식과 존재 양태를 이러한 전간기의 특정한 역사적 맥락 안에 온전히 위치 지을 때, 이들을 국가의 규제에 저항하여 민간 자본에 첨단 기술 도입을 매개한 유능한 개인의 역사적 전례로 간주하고 상찬하는 신자유주의의 시선의 몰역사성 또한 분명해질 것이다. 자유를 둘러싼 국가와 개인 사이의 대립이라는 틀로는 자유주의적 자본주의의 위기 앞에 국가 간 경쟁을 염두에 두고 사회 개조와 제국 개조를 시도했던 전간기의 국가·사회·개인 사이의 복잡다단한 관계를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들 아마추어 무선가의 사고방식과 행위는 과학기술·국민국가/제국·민주화 사이의 상호 구성적인 관계를 염두에 두고 국가·사회·개인의 관계를 볼 때 온전히 이해될 수 있을 것이다.

91 전간기의 '초국가'의 상상력을 '초국가주의'와 구분하여 개인이 국가에 매몰되지 않는 새로운 공동체에 대한 복수의 구상과 상당수 구상이 부딪친 한계에 대해 냉정히 분석한 유용한 예로는 福家崇洋, 『戦間期日本の社会思想: 「超国家」へのフロンティア』, 人文書院, 2010.